

중국이 알고 싶다면, 상하이 박을 찾으세요~

세 계에서 세 번째로 큰 땅덩이에 지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 중국. 이 중국시장을 향해 한류의 급물살을 타고 달콤한 향해의 뜻을 올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앨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아시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 하지만 제대로 알고가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혀 그 길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여기,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중국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어쩌면 현지보다 중국을 더 많이 알려줄지도 모르는 곳. 그곳에서 '상하이 박'의 인내를 받아보자.

'상하이 박이 알고 있는 중국의 모든 것(blog.naver.com/pjskja.do)' 이라는 심상치 않은 이름의 블로그는 그야말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된 곳이다.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한 보안전문기업 시그엔의 신규 사업팀 박종승 차장이 이 곳의 주인장.

책에서만 보던 중국을 직접 경험해 보고자 그가 중국 유학길에 오른 것이 1998년이었다.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만 있었을 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던 시절,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로 입성한 박차장은 대학원에 들어가 중국투자를 전공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끝없는 관심이 중국진출의 입문서라 해도 손색이 없는 지금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 환경과 법, 제도 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창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 투자 환경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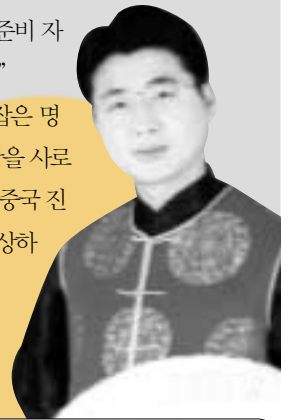
그의 블로그엔 특히 IT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정보들이 많다. 이 자료들은 중국의 각종 웹신문에 나온 IT관련 내용을 그가 직접 번역하여 올리는 것으로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료서치에서 번역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투자된다고. 이 밖에도 중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자료도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 중국에 관심을 갖고 그의 블로그를 찾았다가 이웃을 맺은 사람도 200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다. 워낙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라 그가 중국 현지에

살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게다가 중국 물건을 사다 달라는 등의 다양한 부탁을 해오는 바람에 프로필을 통해서 그가 한국에 살고 있음을 광고해야 할 정도란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번거롭기는커녕, 자신이 제공한 자료들이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종승 차장.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IT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스스로 정리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향후 중국시장을 열기 위한 준비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옛날 우리에게 왕서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월이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국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상하이 박이 있다. 중국 진출에 든든한 뜻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상하이 박을 찾아보자.



▲ 상하이 박이 알고 있는 중국의 모든 것(blog.naver.com/pjskja.do)